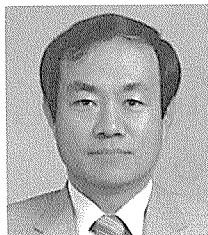


電算과 費用/效果 分析

電算은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많은 企業들이 電算에대한 投資를 아끼지않는 것은 그로 인한 效果가 보다 크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電算의 效果가 과연 큰 것일까? 이러한 의문은 지극히 當然한 것이며, 또 끊임없이 제기되어야 할 問題이다. 어떤 企業에 있어 電算機能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또는 특정한 電算開發案의 타당성을 檢證함에 있어 가장 代表的인 方法은 費用/便益分析(COST / BENEFIT ANALYSIS)이다. 이는 모든 商經係 學問의 根本的인 概念인 바, 「收入보다 支出이 많으면 그 事案은 費用妥當성이 없다」는 간단한 생각이라 하겠다. 그런데 現實의 電算業務에 運用하여 특정사안의 妥當性을 判別해 낸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왜냐하면 同 技法을 적용함에 있어 술한 현실적인 어려움과 봉착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짧막한 글의 의도는 비용/편익분석을 실제 행함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그 代案을 나름대로 제시함으로써 전산종사자들에게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있다.

첫째, 正確한 費用算出이 매우 어렵다는 点이다. 이에 는 會計學的인 技術상의 어려움과 可用한 統計資料의 不足이 주된 原因으로 作用한다. 둘째, 豫想便益의 推定은

남택중
조흥은행 전산부차장



보다 어렵다고 하겠는데, 이는 必然的으로 價値의 문제가 介在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어려움때문에 費用/便益分析은 그 客觀性을 구비하기가 어렵게 되며, 담당자의 사전의도에 따라 비용이나 효과가 과대계상되거나 과소계상되기도 한다. 또 그 내용이 실상은 주먹구구식에 그치기도 한다. 이런 연유로 현실에 있어서는 同 分析報告書가 意思決定의 보조자료로 그치게되며, 오히려 意思決定權者의 思想이나 意志 또는 他事例서 結果가 보다 강력한 要素로 作用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다. 즉 어떤 기업의 가치관이나 경영자의 수완이 더욱 강조되게된다. 따라서 본인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비용효과분석방법을 여러사람의 衆智를 모아 定型化시키고 이를 계속 수정, 발전시켜 나가면, 특정인의 思想이나 분위기로 인한 리스크를 경감시킴과 동시에 客觀性도 띄우게 되리라는 것이다.